

DATABASE 월드뉴스 (국내)

DATABASE WORLD
NEWS(DOMESTIC)

DATABASE뱅크

..... 데이콤 (천리안)

시사 전문지 “주간조선”

천리안을 통해 “주간조선” 기사 전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외교/행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천리안 “주간조선”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사내용 검색이 편리하며 과거 기사내용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간조선(GO WCS),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 부문 33번 ‘시사/교양/종교’ 선택 후 10번 ‘주간조선’ 선택하면 된다. (제공업체 : 조선일보사)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정보망, “총무처 행정 종합 정보망!

* 행정 정보 고도화 - “총무처 행정종합 정보망”을 천리안을 통해!

지난 1970년부터 행정, 행정통계, 법령, 입법 예고, 민원, 건설 등 행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총무처 행정종합 정보망”을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총무처 행정 종합 정보망”은 부처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체계 구현을 통해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으로는 총무처 행정종합 정보망(CAIS), 천리안 TOP 메뉴 600번선택하면 되며, 서비스 내용으로 각종 행정소식, 행정통계, 현행법령, 입법예고, 민원, 건설, 세무, 병무, 주택, 의료, 연금정보, 국가시험정보 등이다.(제공기관 : 총무처)

집중!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 InterNet 서비스!

* 천리안에서 InterNet, InterNet에서 천리안으로!!

천리안을 통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나라와도 연결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망이 있는 나라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듯 천리안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천리안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은 정식 서비스가 되는 11월 1일부터는 분당 3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천리안에서는 또한, 인터넷 사용자 여러분을 위한 인터넷 기획연재코너를 마련해 천리안 이용자들에게 보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비스명 : 인터넷접속(GO INTERNET), 천리안 TOP 메뉴 500번 ‘인터넷접속’ 선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 워싱턴 대학 WORLD WINDOWS:library.wustl.edu, LIBS (login:nic):garam.gopher.re.kr, Gopher Collectins(login:gopher), 법률 LIBS(login:lawlib), 클리브랜드 FreeNet(select 1.visitor), 컴퓨터 UNIX(login:new), NASA SPACE LINK: 192.149.89.61, 뉴스 USA TODAY(login:visitor), DOMAIL Name Lookup(login:lookup), 호스트 Name/Address로 접속, Telnet 서비스만 제공되며, Ftp, Mail 서비스는,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홍보광장>기술/고객과 함께, 멀티미디어 서로컴퓨터!!

고객과 함께 기술과 함께, 조금 다르고 특별한 것을 원할 때, 바로 (주)서로컴퓨터가 있다. 천리안 기업홍보광장에 새로운 식구가 되는 “서로컴퓨터”는 PC, NetWork, CAD, MultiMedia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문의코너와 묻고답하기 코너 공개자료실등과 함께 CAD와 NetWork에 관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로컴퓨터(GO SORO), 천리안 TOP 메뉴 15번 ‘기업홍보광장’의 1번 ‘컴퓨터/멀티미디어/사무용기기’ 부문 14번 ‘서로컴퓨터’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주)서로컴퓨터)

기업홍보광장 - (주)금성사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

(주)금성사를 천리안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다. 금성사의 “TV, VIDEO 등 전자기기” 제품과 “S/W” 등 (주)금성사의 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금성사 활동 및 신제품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특히, Multimedia의 세계로란 메뉴는 요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향방과 기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서비스명:(주)금성사(GO GS), 천리안 TOP 메뉴 15번 ‘기업홍보광장’의 4번 ‘전자/가전’의 3번 ‘금성사’ 선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금성사 첨단제품 소개(TV/VIDEO/AUDIO 등), S/W 마당, 알림마당, 신제품 IDEA 접수 코너, Multimedia의 세계로등 이다.(제공업체 : (주)금성사)

외무부의 “외무부 세계의 창” 서비스 개시

우리나라 외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외무부 세계의창” 서비스가 시작된다. 열린 세계, 각종 외무정보를 제공하게 될 “외무부 세계의 창”을 통해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가져보 바란다. 국가별 개황정보와 국제기구정보, 재외공관 안내 등을 제공할 외무부의 “외무부 세계의 창” 서비스를 접해보길 바란다.(서비스명:외무부 세계의 창(GO MFO), 천리안 TOP 메뉴 18번



‘공공/지역/농수산’의 ‘중앙부처정보’ 중 11번 ‘외무부 세계의 창’ 선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국가별개황정보, 국제기구정보, 재외공관안내, 제한외국공관, 여권발급안내 등이다.(제공기관:외무부)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경북경제정보/민원안내” 서비스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북도청에서는 경상북도의 지역경제정보와 경북도청의 민원안내 서비스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해외정보망” 서비스를 통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될 “경북경제정보/민원안내”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서비스명:경북경제정보/민원안내(GO KEIN), 천리안 TOP 메뉴 18번 ‘공공/지역/농수산’의 31번 ‘지방자치단체’ 중 37번 선택) 서비스 내용으로는 해외정보망, 농수산방, 지역경제방, 여론수렴 등이다. (제공기관:경북도청)

..... **한국PC통신(HITEL)**

가산전자 서비스 개시

최첨단의 기술을 창조하는 가산전자가 하이텔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PC의 동반자 한글마당, 세계 최초의 PC 내장형 입체영상 시스템 3D Max를 생산 판매하는 가산전자의 메뉴는 한글마당, 멀티미디어, 입체란을 개설하여 이 제품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실에는 가산전자의 각종 유익한 자료들이 등록된다. 자세한 내용은 1) 어느 화면에서나 ‘GO KASAN’을 입력하거나 2) 초기화면(top)에서 15.광고/홍보 → 3.컴퓨터 → 13.가산전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망사업 서비스 정보 개시

신규창업, 업종전환 그리고 각종 경영에 필요한 길잡이 <유망사업정보(go kbi)>가 10월10일부터 서비스 개시됐다. 제공되는 정보는 국내 전업종의 점포를 세분화하여 시장환경분석에서 영업노하우까지 제공하는 “유망점포 총정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금규모별 추천사업”,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사업과 아이디어”, 현재 국내에서 개업가능한 신규업종을 소개하는 “우리나라 유망업종”, 자격증 종류에 맞춰 유망한 사업을 소개하는 “자격증과 사업”등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일반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해외의 뉴비즈니스”, 해외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세계의 신상품”정보 그리고 경영혁신에 필요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소프트, 영업/판매팀 정보등 이다. 아울러 사업가에게 필요한 필독서에 대한 정보, 하이텔을 통한 정보 이외에 좀더 자세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탁조사, 그리고 각 업종별 구직정보가 서비스된다. <유망사업정보>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유망사업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텔에 접속후 1) 어느 화면에서나 go kbi를 하거나 2)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7.경영과 산업 → 4.산업 → 12.유망사업정보의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여성신문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내 유일의 여성 정론지 여성신문이 제공된다.여성신문은 여성관련 뉴스와 인물, 여성의 시

각으로 다른 시사문제 등과 영화·연극·방송·문학 등에 관련된 여성문화 소식을 담고 있다. 이밖에 여성신문에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성들의 삶, 해외여성 관련 기사 등 여성전문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알찬 기사가 실린다. 하이텔 최초의 여성전문지를 받아보려면 1)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womennew'하거나 2) 하이텔 초기화면 → 3번 뉴스/인물 → 13. 전문지 → 11. 여성신문 순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문화예술정보 - (주) 캔즈라인

문화예술정보(go cans)가 보강된 정보를 담아 새롭게 선보인다. 본 서비스는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미술/전시회, 이벤트 등에 대한 소개와 일정으로 구성되어 좋은 공연물을 찾고자하는 사람에게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이 곳에 오면 문화가 산책, 연애가 소식 등 문화계의 동정을 살필 수 있다. 문화예술정보를 보려면 (1) 초기화면 → 4. 생활/문화 → 12. 문화/예술 → 3. 문화예술정보로 찾아가거나 (2)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cans' 하면 된다.

해외정보채널 해외산업속보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해외정보채널인 해외산업속보가 서비스 된다. Information System Korea가 제공하는 해외산업속보는 미국, 일본아시아, EC 등의 주요 경제관련 정보로서 당일날 새벽 일본 동경의 업무제휴사인 Information System Service(주)로 부터 각종 해외산업속보를 전송 받아 한글로 번역 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해외정보 채널이며, 금융, 증권, 서비스, 유통

등 경제 각 분야들이 이미 시장을 개방했고, 건설, 출판 등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의 기업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과 선진기업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해외산업속보는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국내의 모든 기업체에게 요긴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해외산업속보를 이용하려면 모든화면에서 'go infosys'하거나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3. 뉴스/인물 → 13. 전문지 → 10. 해외산업속보 또는 초기화면에서 7. 경영/산업 → 4. 산업 → 13. 해외산업속보를 선택하면 된다.

자격정보 서비스 개시

한국자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격정보가 하이텔을 통해 서비스된다. 21세기는 자격증 시대, 현재 자격증 취득자 수는 약 1,500만명. 취업, 승진, 부업, 사업은 물론 노후보장에도 필수인 자격증, 누구나 자격관련정보를 얻고자 시험시험기관, 교육기관, 서점 등 관련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이제는 하이텔이 드리는 한국자격정보센터의 "자격정보"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다. 공인자격, 전문자격, 기술자격 등 800여종의 자격종류별 시험일시,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제기준, 기출문제 등 관련내용, 그리고 수험도서 소개(예정)와 관련 교육기관 안내는 물론 자격증 관련 뉴스 속보와 21세기의 유망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만나실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 → 5. 교육/취업 → 4. 취업 → 자격정보 순으로 선택하거나, 하이텔 어느화면에서나 "go license"를 입력하면 된다.

..... **에이텔 (POS - SERVE)**

방송과 PC통신의 유익한 만남 <MBC문화방송> 개시

TV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주문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던 적은 없었나? MBC 문화방송과의 만남으로 이제 포스서브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MBC TV, 라디오를 총망라하여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한 뉴스와 각종 드라마의 대본이 제공된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연속극 “서울의 달”의 생생한 대본도 주요 화면과 함께 볼 수 있다. 동의보감이나 이상구 박사의 건강 강좌가 들어있는 “건강정보”, 인기스타들의 알찬 정보 “스타프로필”, 전국에 뻗어있는 지방 MBC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가 있는 “지방 MBC와 함께” 등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MBC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공개방송 일정도 확인하고 참여해보길 바란다. 포스서브를 통한 MBC 문화방송 프로그램 참여나 방송 안내는 물론 기본이다. 방송과 PC통신의 유익하고 확실한 만남, GO MBC를 선택하여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 이용요금은 연말까지 무료이다.

중고자동차의 모든 것, 이제 대림양행과 함께!

과거에는 중고자동차하면 재정력이 부족한 사람이 구매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신차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대체육구가 강하게 작용, 상태와 성능 좋은 차량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중고자동차가 성능이나 상태면에서 신차에 뒤지지 않는다면 단지 ‘새차’라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많은 돈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정보를 주기 위해, 그리고 상태좋은 중고자동차를 추천해주기 위해 대림양행에서 여러분을 찾아간다. 여러분의 쾌적한 CAR LIFE를 위해 노력하는 대림양행을 만나시려면 지금 즉시 GO WHEEL하면 된다.

나우콤 (나우누리)

청와대큰마당에 <국정토론실>을 개설!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큰마당>이 새로이 ‘국정토론실’을 개설했다. 국정토론실의 첫번째 주제는 ‘북미 합의 이후 대북정책 및 외교방향’이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가슴 속이 확 트이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북한핵문제의 타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대북문제를 청와대 국정토론실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길 바란다. 청와대큰마당 국정토론실은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국정현안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등의 안건들을 주제로한 토론실을 개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나갈것이다. 한편, 청와대큰마당을 통해서 건의하신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청와대큰마당 메뉴의 2번 공지사항란에 그 처리여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알려주고 있다. 언제나 이용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청와대큰마당의 문은 열려있다. 청와대큰마당의 ‘국정토론실’에 참여하려면, 초기화면에서 ‘41.청와대큰마당’을 선택한후 12번을 선택하거나, GO BLUE-HS 하신후 12번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 홈뱅킹 - "계좌이체내역확인서" 발급안내

PC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방법 가운데 하나인 '홈뱅킹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예금조회, 계좌이체 등의 제반 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을 경우 입금증 등의 증빙서가 발행되지 않아 경리, 세무 등 관련 업무 처리시 불편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나우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뱅킹 서비스 중의 하나인 국민은행의 "국민하이터치서비스"는 "계좌이체내역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계좌이체내역 확인서"가 필요한 이용자들은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나우누리에서 <PC라인>을 만나자!

컴퓨터 종합 월간지 <PC 라인>을 이제 나우누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경 PC라인에서 발행하는 <PC 라인>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TIP은 물론 유통업계 최신 정보 및 컴퓨터 업계의 빠른 소식,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전문지이다. <PC 라인>을 이용하면 매일 발행되는 PC라인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종 자료들을 등록한 자료실도 함께 제공된다. <PC 라인> 자료실의 자료들은 그동안 PC라인의 CD-ROM 부록을 통해 제공되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료들이다. <PC 라인>을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21. 뉴스/인물'을 선택하신후 51번을 선택하거나 'GO PCLINE' 하면 된다.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컴퓨터, 컴

퓨터 종합지 <PC 라인>을 통해서 PC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길 바란다.

나우누리에서 정보의 바다 인터넷 서비스

최근 전세계적으로 통신인들을 흥분시키며 무궁무진한 정보의 영역을 한층 더 넓혀 가고 있는, 세계적 네트워크 인터넷을 이제 나우누리에서도 만나실 수 있게 됐다. (주)나우콤이 국내 최초의 민간 인터넷 상용사업자인 (주)아이네트와 손잡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나우누리를 통해 11월 1일부터 제공되는 1단계 서비스는 Shell방식의 서비스로, 나우누리 이용자가 아이네트를 통해 인터넷에 개인ID를 개설하면 Telnet, FTP, E-Mail, Gopher, News 등 인터넷의 탁월한 기능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Shell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3만원이다. 이와함께 국내의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나우누리 호스트에 연결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Inbouding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인터넷과 나우누리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다양화했다. 또 인터넷에 별도의 개인 ID를 개설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메뉴방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방식을 통해 별도의 개인ID 개설 절차 없이 분당 25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DB를 재구축하는 Mirroring서비스와 게임 서비스, E-mail Gateway 서비스도 부가서비스로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된다. 이제 나우누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로 전세계 320여만대 컴퓨터에 담긴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시고, 만국의 통신인들과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가져 보기 바란다.

(주)에프윈, 컴퓨터용 영어사전 <PC-DIC> 기획판매

현재 「나우누리」에 포럼을 개설하고 있는 (주)에프윈이 14,400bps고속모뎀 판매에 이어, 두번째 기획상품인 컴퓨터용 영어사전PC-DIC을 온라인 판매한다. PC-DIC은 PC 사용시 나타나는 영문 메시지나 도큐먼트화일, 워드프로세서 사용중 알고 싶은 영어단어의 철자와 단어뜻 등을 찾기 조작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S/W)이다. 120,000단어를 수록한 중사전 분량의 본격 컴퓨터용 영어사전으로서, 도스나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컴퓨터용어사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트에 커서만 가져다 놓으면 단어뜻을 출력해주는 편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PC-DIC의 보급가격은 윈도우즈용이 33,000원, 도스용이 27,000원(부가세 포함/30%할인가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에프윈의 기업포럼을 이용하길 바란다. PC-DIC의 구매신청이나 구매안내를 보려면, 초기화면에서 '33.홈쇼핑'을 선택한 후 91번을 선택하거나 GO FONES 하면 된다.

국정뉴스

..... **체신부**

체신부,내년 2백70억원 들여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

체신부는 내년에 2백70억원을 들여 1백30여개의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정보화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계

속사업으로 전개하고있는 데이터베이스 육성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내년도목표 1백여개 과제와 올해 선정 과제중 개발자가 선정되지 않은 2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수요조사 및 공고, 설명회를 거쳐 관련 업계 및 단체로부터 개발 제안서를 받고 한국통신이 과제를 선정토록 했다. 한국통신은 * 대형 데이터 베이스 * 용이한 유지관리 * 해외 관련데이터베이스 연계성 * 고부가가치 과제등에 비중을 두어 내년 1월말경 개발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과기처**

과기처, 첨단영상SW기술지원센터 설립 추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 영상기법의 개발과 이를 지원케될 첨단영상 SW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과기처는 첨단영상기법의 개발과 이를 지원, 관련기술간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구체화로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영상 SW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할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의 연구인력 및 관련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책임자들로 구성될 첨단 영상SW 기술지원센터는 * 선진외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국내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 영화제작자와 시나리오작가들을 대상으로한 기술컨설팅 및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 영상SW 관련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 슈퍼컴퓨터 및 그래픽 전용 워크스테이션등 영상처리용 컴퓨터와 SW를 지원해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교육부, 정보관련 전문인력 적극 양성

교육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화 진전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학사급 이하 기술 및 기능인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반면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원 중심의 고급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산업관련 대학원의 석·박사 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대학평가인정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산업 대학원 1개를 선정,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원의 교육·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학과 교수의 증원은 물론 산·학·연 교수요원의 교류도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산·학·연 연구개발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학점제(internship)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뉴스

..... **한국통신**

2천년까지 1만5천개 민간 데이터베이스개발 지원

한국통신은 정보통신분야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주력사업화하기 위

해 오는 2000년까지 1만5천개의 민간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지원,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밝힌 “하이텔 데이터베이스발전계획”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하이텔에 접속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사업과 연계해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하이텔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앞으로 추진할 데이터베이스개발 및 보급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 데이터베이스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총 2천3백억원을 투입해 상업성을 지닌 민간데이터베이스분야의 개발자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이어 오는 98년이후에도 국내 민간 데이터베이스시장의 여건변화를 검토, 2000년까지 매년 2천개의 민간 데이터베이스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또 상품성있는 민간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정보료의 유료화 및 정보회수 대행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정보료 회수대행제도의 도입으로 하이텔망에 접속되는 민간 데이터베이스가 오는 2000년까지 총 1만8백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 디지털전자교환기 85만9천회선 공급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내년에 디지털전자교환기를 85만 9천회선 공급하고 시내,국제전송로의 디지털화율을 각각 99%, 96%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최근 마련한 “95년도 경영계획”에 따르면 이처럼 디지털화율을 높여 통신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



축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 서울과 대전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을위한 시험망을 포설할 계획이다. 또 주문형비디오서비스, 의료정보망, 발신전용 이동전화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시외전화교환국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밖에도 후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현지 전화사업에 진출하는등 해외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통신망 고도화에 주력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통신사업의 경쟁에 대비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내년에 통신망 고도화 및 첨단설비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최근 마련한 '95년도 경영목표'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통신망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85만9천회선의 디지털전자교환기를 공급하고 전송시설의 디지털화율을 시내전화 99%, 국제전화 96%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B-ISDN(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대전간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지역의 시외교환국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또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보급을 위해 전화비디오를 비롯해 의료정보망, CT-2(발신휴대전화), 지능망 등 첨단 정보통신망을 구축,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뉴스

전산망조정위, 기간망-민간망 처리 골몰

* 산업정보망·물류종합정보망 등 국가기관과 민간을 연결하는 정보화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산망조정위가 이들 사업의 처리방식에 대해 골몰.

이같은 이유는 이들 사업이 완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민간망으로 남겨둘 수도 없이 양측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타부처와 논란이 발생하기도. 조정위는 이와 관련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전산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아직 뚜렷이 정해진 원칙은 없으나 민간망의 형태를 띤다 해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편입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정보관련 산업매출, 평균 최저 20% 이상 성장 기록

우리나라 정보산업 관련기업의 매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분야 모두 평균 최저 20%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보처리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은 매년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업체의 매출은 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법 시안확정 발표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온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7월 1일부터 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해 임시 운영돼온 국민의 정보요구권은 정식 법령상의 권리로 보호받게 됐으며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요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제기등 법적절차를 통해 불복, 구제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이나 국방, 외교분야 기밀사항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곤 정부의 모든 정부를 국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공개해야 한다. 공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 * 비밀사항
- * 국가안전이나 국방또는 외교관련사항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 * 범죄 예방, 수사, 형집행 등에 관한 내용
- * 공공기관의 내부인사관련 사항
- * 감사, 감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의 의사,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사항
- * 법인및 그외의 단체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등이다.

청구대상기관은 행정부외에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 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청구대상형식은 일반문서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되는 사항까지 포함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성명, 주소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해당관청에 제출, 해당관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정보공개는 지정된 기일, 장소에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특히 제3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 공개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이 정보제공과 관련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여부 결정때 이를 참고토록 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있는 사람은 국내거주국민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도 포함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대통령령

에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시안에 대해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9월27일 현재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기관에 공개가 신청된 문건은 3백68건으로 이중 40건을 제외한 3백28건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 졌다.

포스데이터, 통합OA시스템 계획

포스데이터가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문서작성, 전자메일, 결재, 데이터베이스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통합 OA시스템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스데이터는 최근 전자메일 “메아리”와 멀티미디어형 워드프로세서 “일사천리3.0” 등 관련패키지SW를 잇따라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이들 제품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웨어 “일사천리오피스”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스데이터는 또 “일사천리오피스”를 기반으로 호스트와 분산형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그림사용자인터페이스(GUI)지원과 멀티미디어형 정보통합관리가 가능한 통합OA시스템을 내년4월까지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통합OA시스템은 문서의 작성, 전송, 결재, 보관, 검색, 폐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OA부문과 회계전자전표, 인사관리, 최고경영자 정보시스템(EIS) 등 전문 OA부문으로 구성되며 상호연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데이터는 이 통합OA시스템을 내년 8월에 개관하는 서울 대치동 포철그룹신사옥 지능형빌딩 시스템(POSCO IBS)에 첫 적용할 예정이며 같은해 10월부터는 일반기업용으로 개량, 본격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외뉴스

미국, 온라인서비스 경쟁 가열

미국의 양대 온라인서비스업체인 프로디지사와 아메리카온라인사간의 서비스요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프로디지사는 최근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요금을 인하해 라이벌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의 견제에 나섰다. 프로디지는 14달러 95센트인 무제한 이용 요금을 이용자의 선택 여하에 따라 5시간에 9달러95센트만 지불할 수 있도록 낮추기로 한 것이다. 프로디지는 요금을 앞으로 더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메리카온라인사도 별도의 시간당 이용요금을 3달러 50센트에서 2달러95센트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온라인은 프로디지의 사용료 인하공세에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유럽·일본업체, 'MPEG2' 특허창구 단일화

소니, 마쓰시타전기, AT&T 등 미국·일본·유럽의 전자업체 8개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동화상정보 압축기술의 사실상 세계표준규격인 'MPEG2'에 관한 기본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

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허료 창구 단일화에 합의한 업체는 미국 AT & T, 제너럴 인스트루먼트(GI), 일본의 소니, 마쓰시타,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프랑스의 톰슨,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으로 알려졌다. 특허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압축된 동화상정보를 디코더를 사용해 원래대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에 필요한 기본 특허는 4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0%를 이들 8개업체와 컬럼비아대학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의 창구 단일화로 이 특허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창구가 되는 단체에 일정액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면 이들 업체와 컬럼비아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제네랄사, 서비스망 확충 북미시장 진출

프랑스의 통신서비스 및 수자원관리업체인 제네랄 데 조사는 영국 보다폰사, 미국 사우스웨스턴벨사 등 2개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제2이동통신업체인 제네랄 데 조사는 이 회사에 대한 보다폰사 등의 지분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자국내 이동서비스망 확충 및 북미시장 진출의 여건을 강화했다고 프랑스의 '레 제코'지가 보도했다. 제네랄 데 조사는

보다 폰이 이 회사의 계열 코피라사에 보유중인 지분 4%에 8억8천만프랑을 더해 코피라의 자회사인 프랑스이동통신(SFR)사의 주식 10%와 교환했다.

프랑스텔레콤, 고속 미니텔서비스 시작 전송속도 8배

프랑스텔레콤은 자국의 주요 도시에 '고속 미니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보다 8배 빠른 속도(매초 9천6백비트)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회선망 정비도 거의 마친 상태다. 이 서비스는 회선의 능력 향상으로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동시에 사진전송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 회사는 기업을 위해 단말기(4천대로 한정)를 올해 중 시판할 예정이고, 추후 일반가정에도 '고속 미니텔'을 보급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도 퍼스컴이 있으면 지원하는 모뎀(약 1천프랑=약 1만9천엔)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영 통신사인 AFP가 사진의 전송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정보 서비스의 다양화가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텔레콤은 우선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서비스를 장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용화된지 이미 15년이 지났고 전송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텔레콤은 2년전부터 총 5억프랑(약 95억엔)을 투입해 차세대 미니텔 개발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텔레콤은 고속 미니텔을 전국 규모로 정비중인 광통신망(뉴메리스, 매초 64킬로비트)에 접속할 준비도 진행중이고, 일반에 대한 보급은 추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한 미니텔을 사용한 요금 지불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말에 신용카드 읽기기능을 설치하고 티켓구입에서 쇼핑까지 폭넓은 범위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미니텔 단말 보급대수는 현재 약 6백50만대, 정보제공자도 2만4천개 업체에 달하고, 시민 사이에서 정착중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고정밀도 화상이나 음성의

전송이 가능해지고 미니텔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서 위성데이터방송·인터넷 연결한 홈쇼핑 시스템 구축키로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다이이치사가 위성을 통한 데이터방송과 세계적 정보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한 홈쇼핑시스템을 구축,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다이이치가 추진하는 홈쇼핑시스템은 데이터방송으로 해외상품정보를 가정의 TV나 PC에 보내고 이를 본 소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PC통신으로 직접 해외기업에 주문하는 방식을 갖추게 된다. 다이이치의 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데이터방송은 방송위성의 주파수대역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이용, 디지털 신호로 된 영상이나 음성을 내보내는 것이다. 데이터방송의 사업주체인 위성디지털음악방송은 조만간 다이이치의 사업계획서를 우정성에 제출, 올해 안에 인가를 얻어낼 계획이다. 또 인터넷은 전세계 1백 50개국에서 3천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컴퓨터통신망으로 최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각광받고 있다. 다이이치는 상품의 특징 등을 설명하는 화상과 음성데이터를 제작, 방송위성(BS-3)에서 일본전역을 대상으로 매일 저녁 '전자카탈로그'란 데이터를 방송할 계획이다. 다이이치는 이미 인터넷망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은 PC통신으로 다이이치의 컴퓨터와 접속함으로써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이번에 회사가 발표한 홈쇼핑시스템계획이 실현된 경우 방송위성의 데이터방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정부, 민간 정보고속도로사업 지원

미국 상무부는 정보고속도로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윌스트

리트저널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2천4백40만달러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보조금 수혜 대상은 가상현실 여행서비스에서 원격진료에 이르는 92개의 민간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지원은 상무부 산하 미국통신정보행정국(NTIA)에서 담당하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6천4백만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론 브라운 미 상무장관은 “정부지원금이 고속정보통신망 보급 확대와 노동 및 빈부간 차이 등 사회적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IBM, 특허공보 검색시스템 판매 나서

일본IBM은 데이터 재판매업체인 국제인포메이션서비스(KISCO)와 제휴해 특허공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의 판매에 나섰다. 특허청이 주 3회 발표하고 있는 특허공보 가운데 고객마다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의 구축도 맡는다. 이 회사는 모든 공보정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경제성을 내세워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특허공보 검색시스템/6000’은 KISCO의 정보제공서비스 ‘KISPAT’와 일본IBM의 하드웨어·소프트제품을 맞춰서 제공된다. 서비스요금은 월 6만7천1백60엔,시스템은 하드.

소프트 합해 7백14만엔부터. KISPAT는 특허청이 CD롬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개공보,공고공보 중에서 각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일본전신전화(NTT)의 ‘INS네트64’를 통해 밤에 데이터를 송신,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갱신하는 것이다. 일본

IBM은 고객측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을 맞게 된다. IBM의 워크스테이션 ‘RS6000’을 서버로 하고 ‘윈도즈’ 탑재 퍼스컴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서버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발명자,출원자,출원시기 등 최대 3백55항목의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화면 왼쪽에 A4크기의 공보서식을,오른쪽에 그래프 및 도식 등을 각각 표시하는 등,간편성도 추구했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92년부터 CD롬을 이용한 공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CD롬을 구입하고 연간 70만건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했다. KISCO는 미쓰이물산이 60%,KDD가 40%를 출자한 기업으로 올 7월부터 KISPAT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판매루트 확대를 목표로 하는 KISCO와 시스템 제안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IBM의 이해가 일치되어 이번 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 각부처들, 전산망 구축 활발

일 정부 각부처들이 신속한 행정처리와 정보교류를 위한 자체 전산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된데다 국제화를 선도하는데는 전산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통산성이다. 통산성은 내달 하순부터 지방 통산국을 포함, 산하 기관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LAN)을 도입하고 또 이 망을 세계최대규모의 학술연구망인 인터넷와도 연결할 예정이다. 이 망으로 광공업 생산지수, 통상백서등 통산성 자료를 전세계에 온라인으로 동시에 발표하는 한편 통산성으로 들어오는 국내외 의견도 이를 통해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내년 2월까지 20

역원을 들여 본부에서는 퍼스컴을 1인 1대씩 배치하는등 지방까지 4천8백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통산성 계획에 자극받은 우정성, 과학기술청, 경제기획청등 지금까지 우편이나 팩시밀리등으로 대외에 자료를 배포해온 부처들도 컴퓨터통신으로 대체하기 위해 LAN을 구축키로 했다.이와함께 각 부처들은 연구정보용 전산망도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춰 정비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서 9백13억5천만엔을 연구정보기반시설확충에 투입키로 한데 이어 올 예산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 13억엔, 방위청 14억엔, 경제기획청 7천2백만엔등 8백16억5백만엔을 이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지난 93년 보다 1백1억엔이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정보망은 문부성산하 학술정보센터의 SINET(1백88개 기관 가입,92년 개통), 농림수산성의 MAFFIN(39개 연구소 가입,88년 개통), 통산성공업기술원의 AIST네트워크(15개 연구소 가입, 84년 개통)등이 있으며 대학중심의 3개 전산망이 인터넷와 연결, 운용되고 있다. 정부의 시설 확충작업에 힘입어 이들 일본의 연구정보전산망은 이제 제2기 발전기로 접어들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각 성청내의 연구기관 간 전산망 구축붐에서 이제는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통합과 국제 전산망의 연계운용으로 확대되어가는 분위기다.

미 정부, 민간정보고속도로 사업 지원

미국 상무부는 정보고속도로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천 4백 40만달러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보조금 수혜대상은 가상현실 여행서비스에서 원격진료에

이르는 92개 민간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지원은 상무부 산하 미국통신정보행정국(NTIA)에서 담당하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6천 4백만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론 브라운 미 상무장관은 “정부지원금이 고속정보통신망 보급 확대와 도농 및 빈부간 차이 등 사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정보소외계층 증가 우려

정보 고속도로의 구축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앞당길수 있는 환상의 미래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환상을 담고 있는 정보화사회가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진보된 형태의 정보화사회에서도 계층간 불균형이나 빈부의 격차와 같은 “오늘”의 문제가 시원한 모습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 미래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비영리 아동문제 연구소인 칠드런스 파트너십은 내일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정보고속도로의 접속 기회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정보의 접속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소수 인종집단의 어린이들은 더욱 대표적인 정보기기인 컴퓨터나 통신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해 정보소외의 위험마저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칠드런스 파트너십은 모든 어린이들이 컴퓨터통신망에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해 정보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할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른 빈부 격차의 심각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과거의 조사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정보화가진전되면서 현재 사회의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간의 갈등은 그대로 미래 사회로 이전될 것이며 오히려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현재 사회의 “가진자”가 정보의 수단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보 친화력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인구 통계국이 9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5만달러를 넘어서는 가구 가운데 40%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수입이 1만5천달러 미만인 가구의 PC 보유율은 5%에 머물렀다. 또한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도 커다란 편차를 나타내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정보 기기인 PC의 소유와 이용 여부가 분명 하나의 척도가 될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 부처내 정보통신망 구축 적극 추진

부서내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국내외에 대한 정책정보공개, 연구개발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구축이 일정부내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일본관 정보수퍼하이웨이를 겨냥한 움직임이다. 우선 부서내의 정보교류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이 통산성이다. 오는 11월하순부터 지방통산국을 포함, 퍼스컴LAN(구내정보통신망)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와도 접속해서 예컨대 광공업생산지수, 통상백서등 통산성발표내용을 세계에 동시배신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전자메일로 통산상 앞으로 국내외의 의견이 모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를위해 내년 2월까지 총 20억엔을 들여 본부에서는 퍼스컴을 1인1대 배치하는등 지

방을 포함해 총 4천8백대의 퍼스컴을 가동한다는 것. 우정성, 과학기술청, 경제기획청등도 지금까지 은 대외자료공개를 우편, 팩시밀리등으로 해왔으나 통산성과 같이 조만간 LAN시스템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연구정보네트워크도 멀티미디어시대에 맞춰 정비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정보네트워크는 문부성 산하 학술정보센터의 SINET(1백 88개기관, '92년 개시), 농림수산성의 MAFFIN(39개연구소, 88년개시), 통산성공업기술원의 AIST 네트워크(15개연구소, 84년개시)등이 있으며 대학중심으로 3개의 네트워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과 접속이 안됐거나 됐어도 회선속도가 매우 늦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작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서 총 9백 13억5천만엔을 연구정보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키로 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13억엔), 방위청(14억엔), 경제기획청(7천2백만엔), 과기청(2백억엔), 환경청(9억8천만엔), 문부성(4백14억엔), 후생성(12억엔), 농수산성(9억엔), 통산성(1백71억엔), 우정성(13억엔) 등 크고 작은 사업을 모두 합쳐 총 8백16억5백만엔을 잡았다. 이는 93년도보다 1백11억엔이나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연구정보네트워크 구축은 제2기에 들어가고 있다. '80년대 후반까지 각성청내의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분야에서 이제는 성청의 벽을 넘는 통합네트워크, 나아가 국제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다. 한편 이같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응한 정보네트워크구축에 대해 행정규제를 중심으로한 일본행정의 폐쇄회로를 열어 제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들중에는 “초정보화사회의 켈쳐쇼크”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OB**